

사람과 사람사이



金東吉
연세대학교수·사학

사람이란 혼자서 존재할 수는 없다. 우선 부모가 있어야 세상에 올 수 있지 저 혼자의 힘이나 뜻만 가지고 세상에 올 수는 없다. 모든 생명이 다 그렇겠지만 사람이란 그런 면에서 더욱 특이하다. 그래서 사람을 두고 태어난다고 하는지도 모른다. 매우 수동적인 뿐, 적어도 출생만은 능동적인 구석이 하나도 없고 순전히 타의만이 작용하여 사람이 세상에 온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부모는 아들이나 딸을 하나만 낳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형이나 동생을 낳아 집안이 와글와글 하게 만든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 집도 있고, 외아들, 외동딸 밖에 없는 집도 있으니 적적하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둘도 셋도 다섯도 열도 낳아 대가족을 이루는 것을 예전에는 매우 바람직하게 여겼다. 요새 와서는 지구가 만원이라고 야단들이지만.

그래서 이리저리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 인구가 이렇게 40억을 넘을 만큼 많아지기 전에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였다. 그래서 인간(人間)이라는 말이 생겼을 것이다. 혼자만이라면 “사이”를 문제삼을 필요가 없었을 터이지만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질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왜? 사람의 행복의 9할이 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위로운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이란 저와 저 이외의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였다. 인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한마디라고 하겠다. 그래서 인간이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무시하면 사람은 사람이 아닐 수 밖에 없다.

그 사이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정직이다. 진실이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이요, 바탕이 아닌가! 다른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정직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다른 것은 번번히 갖출 것이 없어도 진실만 있으면 희망이 있다. 간단한 이야기다. 시험 답안지를 받아 놓고 문제 하나도 제대로 풀지 못해 이름만 적어 놓고 시험장을 나가는 자에게는 장래성이 있다고 믿어도 좋다. 그러나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온갖 부정을 다하는 자는 비록 1백점 만점을 다 받았다고 해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다. 그 눈리는 분명하지 아니한가.

거짓으로 일시 성공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오래 가지는 않는다. 남을 속이는 사람은 결국 저 자신을 속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거짓말로 굶어 모은 재산, 속여서 빼앗은 갑투-거짓은 남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것 때문에 못살게 된다. 허위는 인간관계의 모든 기초를 무너뜨리는 가장 흉악한 원수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꼭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사랑이다. 봉사나 희생이니 하는 것들의 뿌리는 역시 사랑이다. 사랑은 “나”에게 있던 중심을 “너”에게로 옮기려는 노력이다. 그래서 사랑은 베풀 감각이 되기도 한다.

“사랑은 너무 어렵습니다”하며 한숨 짓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양심적인 인간을 위해 정직과 사랑 사이에 교양이라는 다리를 하나 놔볼 수도 있다. 교양의 다리를 타고 반드시 사랑에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정직은 있으니 우선 안심이 된다. 교양의 바탕도 정직이다. 교양은 “너”의 입장이 되어보려는 진실한 노력이다. 예술과 학문을 논하며 에티켓이 완벽을 기한 사람이 다 교양있는 사람이 아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함께 서서 문제를 보는 사람, 다루는 사람-그가 곧 교양있는 사람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 될 수도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삶이라는 예술의 과제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꼭 있어야 할 것은 정직과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교양이라도 있어야 산다. 그래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음악이 있고 이 세상은 살 만한 곳이 된다.